



LPG 탱크 옆 위험한 흡연
28일 오후 광주~순천 간 고속도로 주암터미널 LPG 탱크 옆에 조성된 흡연구역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공금 빼돌린 고교 행정실장 중징계

학교 비정규직 부인 채용도

광주지역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출장비를 부당하게 채용해 같은 부인을 학교 비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광주지역 A고교 행정실장인 B씨(52·급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지난해 관외출장 여비나 초과근무 수당을 받으려고 허위 서류를 상습적으로 만들고, 회의 출장을 명분으로 기차표를 예매했다 취소해 차액을 타내는 수법으로 공금 4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땅 소유권 시비 이웃 살해

광양경찰은 28일 땅 소유권 시비로 이웃을 살해한 임모(74)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50분께 광양시 진월면 자신의 집 앞에서 이웃집에 사는 박모

(여·58)씨를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이날 자신의 집 출입로로 사용하던 땅 소유권 문제를 놓고 박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현금 뭉치에 여배우와 술자리까지…

광주지검, 나주 미래산단 비리 17명 기소

전 나주시 투자유치팀장 ‘기막힌 향응’

5만원권 현금 뭉치에 흔치 않은 여배우와의 술자리까지…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이하 미래산단) 조성사업 과정에서 오간 공무원과 업자의 겸은 거래 실태는 혀를 내두르게 한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8일 ‘나주시 산업단지 비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을 총괄한 나주시청 행정 6급 김모(49) 전 팀장의 부패 행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 전 팀장은 지난 2008년 대규모 자금 마련 실패로 좌초한 사업을 재추진하던 지난 2011년 초 G투자자문 회사 이모(여·40) 대표를 만났다. 당

시 이 대표는 미래산단과 함께 문제가 된 남·신도산업단지의 사업자금 500억원의 대출 은행을 일선에서 수수료 13억4500만원을 받았다. 이 대표는 당시 김 팀장에게 이 가운데 5만원권으로 2억원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사업규모가 더 큰 미래산단 조성사업에 ‘눈독’을 들었고, 이 사업은 자금 조달부터 조성까지 맡기로 생각한 뒤 김 팀장을 설득했다. 이후 B증권으로부터 2000억원 대출을 성사시키고, 자문료(77억원)와 사업자금(1658억원)이 입금되자 이 대표는 2011년 7월부터 본격적인 ‘김팀장 모시기’에 나섰다.

먼저 떡값 명복으로 100만~300만

원씩 주고, 고급 주점에서 향응을 접대한 것은 기본 ‘코스’. 복잡한 세탁과정을 거쳐 승용차를 선물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팀장은 만족하지 못했다. 이에 이 대표는 “김 팀장이 여배우나 텔런트를 만나고 싶어한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김 팀장과 여배우 H(27)씨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서울에서 3~4차례 만났고, 김 팀장은 H씨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 대표의 신용카드로 600만원짜리 샤넬 가방을 선물하기도 했다.

김 팀장은 500억원 사업에 2억원의 뇌물을 받았지만, 2000억원 사업에는 9차례에 걸쳐 고작 3100만원 상당의 떡값, 자동차, 향응만을 받았다는 점에서 여배우를 동원한 ‘접대’는 결정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영화에서 주연급으로 활약하

기도 한 H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사적인 관계에서 호의 표시로 주고받은 선물로 보고 H씨를 처벌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름을 대면 대부분 알 정도의 여배우”라며 “개인적인 부분이라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짧지만 ‘화려한’ 시간을 즐긴 김 팀장은 특기별 위반(뇌물수수), 특경법 위반(배임), 하위공문서 작성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광주지검 특수부는 이날 나주 미래산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임성훈 나주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6명과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등 임직원 11명 등 17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내유침 (8784)



대마초 흡연 비양카 등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김명희 부장검사)는 28일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미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어학원 강사 서모(2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대마초를 피우거나 매매·알선한 혐의로 미국 국적 방송인 비양카(여·24)씨, 아이돌 가수 최다니엘(21)씨, 프로게이머 차모(23)씨, 연예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모(33·여)씨, 전직 영어강사 임모(21)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내연녀 허벅지 찌르자 경찰 120명 출동

○…연인 간 말다툼 중 흥기기에 절렸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 120명과 순찰차 23대가 순식간에 현장으로 출동해 주민들이 어리둥절.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S(51)씨는 28일 오후 2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생촌동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37)와 말다툼 중 흥기기에 절렸다는 신고를 한 차례 찔렸다는 것.

○…경찰 120명은 범행 현장 주변에서 인질강도 도의 훈련을 하던 종신고를 받고 3분 만에 현장으로 달려가 S씨를 붙잡았는데, 한 경찰관은 “모든 병력이 강력사건이 줄 알고 현장에 투입됐다”고 설명.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물 섞인 휘발유 차 주행중 멈춰 ‘아찔’

광주 남구청, 주유소 점검 허술

광주시 남구청의 관내 주유소에 대한 품질 검사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기별로 이뤄지는 품질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가 하면,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곳에서 물이 섞인 불량 기름을 주입한 차량이 도로를 달리다가 엔진이 갑자기 멈춰서는 등 사고도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8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지역 내 3개 주유소에 대한 품질 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5곳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전혀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1년에도 관내 주유소 3곳의 검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구는 주유소 37곳을 분기별로 나눠 석유 품질 기름 주입구 불량 여부 등을 점검해오고 있지만 일부 주유소는 지난 2년간 단 한 차례의 검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남구가 검사에서 제외한 월산동 한 직영 주유소에서 지난 15일 물이 섞인 불량 기름을 주입한 차량이 도로 한 가운데에서 갑자기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당시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기준치 0.01%의 15배가 넘는 0.15%의 물이 섞인 사실을 확인, 남

구청에 통보했다. 자치단체의 허술한 안전 점검으로 애꿎은 시민만 곁당을 먹은 셈이다.

운전자 백씨는 “만약 고속도로였다면 대형 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했대”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남구 관내 주유소 37곳 중 등록한 20년이 넘은 주유소는 모두 16곳(43.2%)에 이르는 만큼 철저한 안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적발된 전력이 있는 주유소를 중점 관리했으며, 해당 주유소는 경고 및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것”이라 말했다. 한편, 광주서부경찰도 해당 주유소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백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성접대 의혹’ 연루 인사들 불법행위 포착

경찰, 10명 출금 요청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건설업자 윤모(52)씨의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전 차관 등 10여명에 대해) 지난 27일 출국금지 요청한 것은 수사에 필요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라면서 “협의에 대한 상당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수시로 윤씨의 불법행위와 접대에 따른 대가성이 있는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춰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전 차관 등이 윤씨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이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김 전 차관의 실명이 담긴 혐의 내용을 적시한 진술·정황 등을 담

은 기록을 출금요청서에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히 윤씨가 각종 사건과 소송에 수십 차례 휘말리고 큰 벌목을 받지 않은 과정에서 김 전 차관 등이 윤씨를 주입한 차량이 도로 한 가운데에서 갑자기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특히 윤씨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이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김 전 차관의 실명이 담긴 혐의 내용을 적시한 진술·정황 등을 담

/연합뉴스

제9기 결산 공고

재무상태표

(201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 산	7,593,669,706	부 채	1,401,228,915
(1) 당 차 자 산	7,540,185,706	1. 미 지 금	198,501,639
1. 현금및현금성자산	38,880,422	2. 예 수	375,287,350
2. 단기 금 융 상 품	6,791,701,653	3. 부 가 세 예 수금	228,022,343
3. 미 수 용	622,825,860	4. 단 기 차 입 금	0
4. 선 용 비 용	81,491,421	5. 미 지 금 비 용	599,417,583
5. 당 기 법 인 세 자 산	5,286,350	6. 유동성 장기 부 채	0
(2) 재 고 자 산	53,484,000	II. 비 유 동 자 산	108,852,373,067
I. 저 장 품	53,484,000	1. 저 장 기 차 입 금	108,759,000,000
II. 비 유 동 자 산	126,652,499,604	2. 퇴직급여충당부채	93,373,067
(1) 유 형 자 산	189,424,401	부 채 총 계	110,253,601,982
1. 토 지	32,607,846		
2. 건 물	128,390,107		
3. 감 가상각 누계액	△802,438	I. 자 본	50,091,000,000
4. 기 계 장 치	229,909,091	II. 자 본 임 여	50,091,000,000
5. 감 가상각 누계액	△227,488,530	III. 자 본 조 정	△262,270,710
6. 감 가상각 누계액	△51,901,194	IV. 기타	△262,270,710
7. 차 령 운 반 구	547,163,427	5. 결 손	△25,836,161,962
8. 공 구 와 기 구	15,700,000	6. 미 철	△14,992,950
9. 감 가상각 누계액	△14,992,950	7. 보	3,883,088,515원)
10. 비 유 동 자 산	126,379,205,028		
11. 관 리 운 영 권	154,780,201,579		
12. 국 고 보 주	△28,603,915,004		
13. 임 차 자 산 개 량 권	202,918,453		
1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83,870,175		
15. 보 증	83,870,175		
자 산 총 계	134,246,169,310	부채와 자본총계	134,246,169,310